

# 2%미만 ... 시·군 '주민참여예산제' 유명무실

## 주민들 참여 저조하고 지자체 무관심 속 겉돌아

### 5년간 예산편성 반영 비율 전체의 1.77% 불과

전남도와 각 시·군이 지방자치 실현을 목표로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들의 참여 저조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겉돌고 있다.

또 각 지자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산비중은 전체의 1%선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각 시·군 예산 반영실적도 최대 40% P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조례 상 회의 개최 횟수나 실적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각 시·군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주

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편성에 반영한 비율은 전체 예산(당초예산기준·추경예산 제외)의 1.77%(1조2559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11년 1.56%(2024억원) ▲2012년 2.31%(3154억원) ▲2013년 1.69%(2374억원) ▲2014년 1.59%(2319억원) ▲지난해 1.73%(2687억원) 등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예산과정의 참여를 통해 단체장의 전횡을 방지해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잡기 위한 것인데, 애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각 시·군별 예산반영률도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예산반영실적이 가장 좋은 지자체는 42.

05%(1320억원)를 기록한 함평이었으며, 이어 ▲여수 6.14%(539억원) ▲보성 5.74%(207억원) ▲구례 2.30%(55억원) ▲장성 1.93%(63억원) ▲고흥 1.66%(75억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예산반영실적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전체 예산의 0.02%(1억3000만원)를 반영한 영광이었다. 강진(0.03%·1억7000만원), 진도(0.03%·1억원), 나주(0.11%·6억5000만원), 장흥(0.14%·5억4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이 전체 예산대비 반영률이 저조하고 각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예산반영률이나 제도활성화의 핵심주체인 주민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뒷받침 없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무늬만 주민참여예산제'일 뿐, 사실상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조정 등 권한은 받지 못한 채 제안자로서 역할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와 각 시·군이 접수한 민원은 사실과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운영위 등의 과정을 거치지만 예산 심의의 결정은 도의회에, 최종 예산편성 권한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민참여라고 보기엔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심의·조정 등)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에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이상 반영하라는 규정도 없고 지자체 재정 여건도 달라 지자체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서 "예산하고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더민주 소속 광주시의원들

### 본회의 보이콧 경고 파행 예상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본회의 '보이콧'을 경고하고 나서 파행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탈 조짐을 보인 일부 더민주 의원까지 끌어들이 '비밀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

더민주 소속 시의원들은 7일 총회를 하고 국민의당 부의장 후보 2명 중 1명이 사퇴하지 않으면 8일 예정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부의장 후보로는 박준수·이정현 의원이 등록했다.

더민주 측이 원구성 협상 타결 후 의장 선출을 제안한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부의장 후보 2명을 낸 것은 부의장 2석마저 독식하려는 의도로 협상 의지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31사단 내 광주하계 U대회 기념공원 제막식

7일 오전 제31보병사단 내에 마련된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기념공원' 제막식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참석자들이 공원을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도의회 새마을장학금 중복 지급 조례 추진 논란

### 등록금 총액 범위내 지원

### 수혜자 수 크게 줄어들 듯

전남도의회가 새마을회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추진, 논란이 예상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장학금 수혜자가 수혜자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도

의원이 과거 군 단위 새마을회 사무국장 을 역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A도의원 등은 지역 새마을지도자 자녀 또는 유자녀로서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고교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에 대해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전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조례안은 B군 새마을지부 사무국장을 지낸 A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동일학 기 중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한 학기 등록금을 100만원 내는 대학생이 자치단체로부터 5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면 등록금 총액범위인 50만원을 새마을 장학금에서 추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기존 조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새마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중복 지급이 가능해질 경우 수혜자 수가 상당 부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자치단체장이나 새마을회 간부들의 주관적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중복 지급을 허용할 경우 일부 대상자에 한해서만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큰 점도 문제다.

A도의원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수가 감소 추세인데다, 군지역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다"면서 "한 학기 등록금이 400만~500만원 가량 하는데, 이들 자녀에게 조금이나마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지난 6년간 새마을회 사무국장으로서 일했지만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alee@kwangju.co.kr

## 광주시, 실·국장급 승진·전보

광주시는 명예퇴직 등으로 주요 직위에 공석이 발생함에 따라 민선 6기 하반기 현안해결을 위한 역량결집에 중점을 둔 실·국장급에 대한 승진과 전보 등 2016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7일자로 단행했다.

이사관(2급) 승진에 안치환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부이사관(3급)에 박영석 환경생태국장 지정대리와 박동희 미래산업정책관을 각각 승진 의결했다.

한편, 박영석 현 환경생태국장 지정대리자가 승진 의결돼 지정대리가 자동 해제됨에 따라 홍남진 시의회 총무담당관을 신규 3급 지정대리자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이번 승진 심사·의결 기준을 경력과 승진사열을 중시하면서 업무추진력, 관리자로서의 능력, 경력, 실적, 평

판 등을 종합 판단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이동은 ▲시민안전실장 안치환 ▲문화관광체육실장 염방열 ▲복지건강국장(지정대리) 홍남진 ▲환경생태국장 박영석 ▲도시재생국장 백봉기 ▲일자리경제국장 박동희 ▲공무원교육원장 이종환 ▲상수도사업본부장 정평호 ▲동구 부구청장 김병수 ▲서구 부구청장 유용빈 ▲남구 부구청장 문범수 ▲대변인 장성수 ▲미래산업정책관 이달주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 김진수 ▲시의회 총무담당관 임형택 등이다.

또한, 준국장급 이상 전보인사 기준은 민선6기 하반기 시정현안에 중점을 둔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전문성 및 역량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 중심으로 이를 고려해서 배치했다. /채희종기자 chae@

## 광주시 신임 실·국장 프로필



### 안치환 시민안전실장

업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획력이 뛰어나다. 업무에 대한 열정과 집중도가 높다. ▲장흥(58) ▲조선대 법학과, 전남대 행정대학원 ▲투자유치지원관 ▲자치행정과장



### 박동희 일자리경제국장

리더십과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 새로운 업무를 발굴, 추진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보성(58) ▲광주대 행정학과 ▲미래산업정책관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



### 박영석 환경생태국장

직렬과 상관없이 다양한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현안 돌파에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영암(58) ▲조선대 도시계획학과 ▲문화예술관광 ▲경제산업정책관



### 염방열 문화체육실장

전략적이고 창의적인 업무를 추구한다. 탄력적인 사고로 업무를 발굴하는 스타일이다. ▲광주(52) ▲성균관대 행정학과 ▲복지건강국장 ▲정책기획관



### 백봉기 도시재생국장

합리적이고 꼼꼼한 업무처리 능력이 돋보인다. 특히 민원업무의 조율과 해결에 탁월하다. ▲광주(57) ▲전남대 토목공학과 ▲남구 부구청장 ▲U대회조직위 기술운영본부장



### 정평호 상수도본부장

업무에 대한 욕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빠른 행정 수행으로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해남(57)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서구 부구청장 ▲체육U대회지원국장



### 이종환 공무원교육원장

광산업의 기반을 다진 경제통이다. 경제는 물론 두루 해박한 업무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다. ▲광주(57) ▲조선대 무역학과 ▲일자리경제국장 ▲전략산업과장



### 홍남진 복지건강국장

성실하고 차분하면서도 리더십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균형 잡힌 업무로 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 ▲화순(58) ▲호남대 대학원 ▲시의회 총무담당관 ▲행정지원과장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수신경계: 외상성척수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환 병원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임케어병동·치매·중풍·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